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환경운동 또다른 수행

1970년 전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찰에는 산감(山監)이란 소인이 있었다. 산을 돌보는 일은 수행, 포교와 함께 사찰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의 실천이었다. 91

년 사회환경 훼손으로 시작된 불교환경 운동은 어느덧 들불로 타올라 사회를 밝히고 있다.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관동 문제, 새만금 간척사업 등과 직면해 있는 불교 환경운동을 진전하고 과제를 알아본다.

불자세요? '환경보살' 되세요



◇불교계 환경운동은 수행환경 수호의 차원을 넘어 생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교환경운동 진단과 과제

■사찰의 담장을 넘어 사회로

1991년 시작된 해인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립 반대운동은 12년이 지난 2003년 2월 대법원의 백지화 판결로 끝을 맺었다. 해인골프장 건설 저지 운동은 불교계가 환경문제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

95년부터 96년까지 전개된 경부고속철도의 경주 도심 통과 반대운동은 불교 환경운동이 '사찰'이라는 담장을 뛰어 넘는 분수령이었다. 결국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은 외곽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관철시켰다. 이후 사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크고 작은 환경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에는 지리산담 건설을 막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서울외곽고속도로의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관동 문제,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 경부고속철의 천성산·금정산 통과 등 개발논리를 앞세운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한 환경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수경스님, 지율스님 등은 불교 환경운동을 이끄는 환경운동가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환경훼손에 자조적 목소리

1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교 환경운동이 이렇게 확산된 것은 사찰이 국립공원이나 지역개발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찰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성보와 가람을 수호하기 위한 환경운동은 다소 제한적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서 생명·수행환경 보호

반환경적 대형불사·오페수 해결 과제

참여도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001년 해인사 정동대불 건립 문제는 환경에 대한 불교계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불을 건립, 사회의 비난섞인 눈초리를 받았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대형불사와 같은 반환경적인 행위가 불교계 내부에서 지속된다면 불교 환경운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불사를 통해 단단계 업그레이드 된 불교 환경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부터 환경보살 돼야

최근 환경운동은 환경오염의 정화에 관심을 쏟는 환경주의 운동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킨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태주의 운동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 만으로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은 불교 환경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리산 실상사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벌이고 있는 생태공동체 운동도 생태주의 운동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불교 환경운동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 구조와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불교계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는 대형불사를 지양하고 오페수 정화시설을 갖추는 등 실천수법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불교 환경운동은 불교의 생명사상을 사회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불교 환경운동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불교 환경운동은 나와 사람부터 환경보살이 되겠다는 서원과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 환경운동 역사

91년 불교환경교육원이 호시

30여 단체 95년부터 연대활동

불교 환경운동의 태동은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창립된 91년이라는 게 교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불교적 이념을 갖춘 조직이 지속성을 갖고 환경운동에 나선 것은 불교환경교육원이 처음이다. 92년 공해추방운동 불교인모임 그리고 93년 맑고향기롭게가 창립되면서 교법사와 청소년, 대중이 전개한 각종 환경 심포지움과 캠페인은 각 사찰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 불교 환경운동의 대중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불교계 단체들의 연대활동은 95년부터 시작됐다. 95년 6월, 조계사에서 열린 '95 청정국토한마당'을 계기로 30여 불교단체들은 불교 환경운동의 확산을 꾀할 수 있었다. 또한 재가불자들의 환경운동 동참이라는 성과도 일궈냈다. 이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조계종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이념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직들이 연이어 구성됐다.

환경운동 이끄는 단체들

네트워크 형성해 생명운동 전개

기능운동·대안교육 등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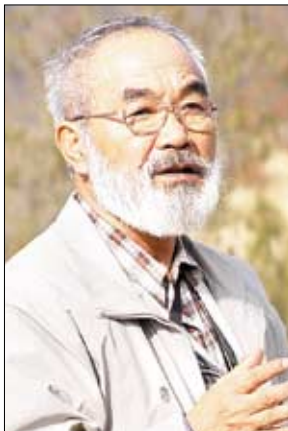
한국불교환경교육원과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청정국토살리기운동본부, 맑고향기롭게, 두레생태기행,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 불교계 내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은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역할 분담도 하고 있다.

불교환경교육원은 불교사상과 환경운동, 나아가 생명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이념적 토대를 만들어내고, 환경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도농·지역공동체 운동과 대안공동체운동, 기능운동, 대안교육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을 벌이면서 환경운동의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우리꽃 가꾸기, 생태기행 등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바꾸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북한산·수락산·불암산 살리기와 천성산·금정산 살리기 등 굵직한 환경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교 환경운동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켰다.

이들 단체들은 사상 연구와 개발, 공동체 운동, 사회화 운동 등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도 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의 활동은 사회를 불국토로 바꿔 나가려는 적극적인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문정현 신부가 본 불교 환경운동



“종교와 현실 연결 교육 필요”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생명존중 사상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정현 신부(사진)는 환경운동에 있어서 불교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만금 갯벌에서 조계사까지 3보1배를 하며 새만금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현장을 매일 찾고 있는 문 신부는 “새만금이나 북한산,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교계의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불교계 내부에서 그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환경적인 불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문 신부는 “종교와 현실을 연결하는 교육을 종단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회를 바라보는 신도들의 시각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들은 불교가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출간 1년 만에 깨어있는 지성인의 필독서가 된 현대경전!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있는 것보다는 없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을 하나 들라면, 첫째로 ‘종교’를 들어야 할 것 같다. 모든 종교집단이 한결같이 표방하는 것이 ‘사랑’과 ‘자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개 그것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오지 않았던가? 보통의 경우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는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다만 새로운 분류의 시작일 뿐이다.”

대형 지음 | 값 15,000원

희엄(華嚴), 양자역학, 절창 禪詩와 선문답이 어우러져 완성한 마음의 유전자 지도!

- 300,000km/sec의 집대속도는 정지 상태와 다르지 않다
- 모든 수이 0을 곱하면 왜 0이 되는가?
- 가로 세로 놓이는 없는데 '뒤쳐'만 있단니?
- 이 우주에는 '지금'도, '먼저'도, '나중'도 없다
-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깨달음'을 알지 못한다
- 항상 반쪽이면서 동시에 늘 꼭 차 있다.
- 불보살을 공경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

